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기독교교육주간 새벽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 꾸러기학교 졸업여행이 24일(화)-27일(금) 제주도로 다녀옵니다.
어린이학교 도보여행이 22일(일)-26일(목) 제주도로 다녀옵니다.
- 대만 임자내교회(노효종선교사) 건물 보수작업을 위해 지원팀이 24일(화)-31일(화) 다녀옵니다. 지원팀: 최기찬 김종필 서병욱
- 최성필 목사 합의금 지급이 9월 15일로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 다음 주일은 루터의 종교개혁 506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특강이 있습니다. 강사: 박진용목사(한길교회)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병우 · 정영옥 집사 가정 (감사)
 윤호중 · 하경임 집사 가정 (감사)
 김영동 · 전경희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박예나 청년 (생일 감사)
 권하성 · 권하온 어린이 (생일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43 호

2023년 10월 22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기독교교육 주간 새벽기도회

환한 등불이 새벽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기도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 새벽을 깨운 지체들의 작은 몸짓은 안일함과 나태함을 몰아냅니다. 기독교교육주간 답게 훈련에 가까운 새벽기도회는 그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우고 단련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며,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부족한 잠을 잊고 피곤한 몸을 일으켜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이번 새벽기도회 말씀은 욥기서의 말씀으로 믿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혹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굳게 지키며 강한 인내로 신앙을 지켜가는 욥의 모습을 통해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같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또한 의미가 큼니다.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모두 같은 한 자녀이며 제자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지체들이 동시에 드리는 중보기도는 흠어져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각 역할 공동체를 위한 기도,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와 연령별 사랑방의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여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특별히 전쟁의 소식으로 인해 평화를 잃고 두려움과 걱정에서 시달리는 요즘, 평화를 위해 드리는 기도는 마음의 위안과 일상의 평정을 유지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더욱 전쟁 중인 그 땅에 참된 살롬을 소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어내는 방법으로 생각하거나, 일을 할 때 일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필요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일이며 믿는자들에게는 평생 유지해야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의도인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앙의 개혁과 갱신을 생각하면서 우선 기도회를 열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개혁과 갱신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께 겸손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사귄은 결코 단회적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새벽기도회가 시작점이 되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신앙의 성장과 더불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나아가 한국교회의 개혁과 갱신이 조금이라고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독교교육 주간 새벽기도회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머무는 계기가 되고 매사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삶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주간의 말씀

예수께서는 마음 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

< 마가복음 8장 12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375, 393 / 406

기도 : 이어람 집사

성경 : 욥기 2장

제목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1. 내용: 하나님께서 생명을 제외하고 욥을 사탄에게 맡기셨다.

(What)

<문단구분>

1~6절 <사탄의 두 번째 참소>

7~13절 <부인의 저주와 욥을 찾아온 세 친구>

2. 의미: 욥이 이유 없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 (Why)

1) 욥은 건강마저도 잃어버렸다. 남은 것은 믿음 하나 밖에 없다.

2) 믿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섭리자로 고백하는 것이다.

3)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다.

3. 적용: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 (How)

1)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자. 물질적인 복에 머무르지 않는다.

2) 성숙의 과정을 믿고 인내하자.

3) 상황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을 가지자

꿈을 반죽하는 목요일

요즘 매주 목요일마다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과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업 중에 우연히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퇴직 이후 커피와 빵과 책을 즐기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작은 책방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후 쉬는 시간에 '하은'이라는 친구가 저를 찾아와 저에게 빵 만드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제과, 제빵, 바리스타, 초콜릿, 케이크 자격증을 모두 딴 야무진 친구였습니다. 선생님이 재료를 준비해주면 자신은 제과제빵자격증 실기시험에 나오는 메뉴를 가르쳐주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안이라 제가 덩석 "그러자!" 했습니다. 그렇게 4월부터 '목요제빵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빵 만들기의 가장 큰 매력은 정확한 계량과 절차를 지키면 오차 없이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재료가 반죽의 과정을 거치고, 발효되며 변화하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세상의 진리를 문득 깨닫게 됩니다. 모든 재료는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다른 재료와 잘 어울려서 잘 녹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야 하고, 뜨거운 불에 자신의 몸을 맡겨야만 비로소 새로운 존재, 맛있는 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먹을 수 없었던 것이 먹을 것이 되고, 아주 작았던 것이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큰 것이 되는 것, 이것이 빵의 매력이자, 빵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데는 철저하지만, 타인의 꿈에는 관심 없고, 타인의 역량을 이용하는 데 급급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엮어서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 각자의 꿈만을 생각하며 노력하기 때문에 꿈을 이루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서로의 꿈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 오히려 쉽게 모두의 꿈을 이룰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목요제빵모임 아이들을 통해 가장 평범한 삶 속에서 가장 비범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지난 3월, 저의 꿈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엮어 준 '하은'이라는 친구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랑방공동체의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같이 한번 풀어봐요"라고 말하면서 저의 삶을 엮을 수 있는 지체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권재만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105 : 1-4
31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8 : 1-2
94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 굳은 마음을 탄식하시는 예수님 ” 권재만 목사

마가복음 8 : 11-13
515 그루티기사랑방

설교자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365

주님의 사랑이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박동인 윤경옥 / 봉헌위원 : 박경희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박민정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이예은 김보경 진시우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탄식하며 기도 할 때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십시오.
아멘.

굳은 마음을 탄식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마가복음 8장에 서는 예수님과 종교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보시며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표징을 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굳은 마음을 탄식하는 예수님 바리새인들은 표징을 원하지만 마음이 닫혀있고 눈이 닫혀있어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비판적이고 굳어버린 마음을 탄식하시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현실에 대한 감각이 있으며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을 때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을 탄식하는 자들이 됩시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무감각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현실에 물러나있지 말고 탄식하며 참여합시다.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탄식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러한 현실에 대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개혁과 갱신을 이루어가십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김영화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광릉수목원에 다녀왔습니다.

단풍이 많이 물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초록이 줄고 갈색과 붉은빛 노란빛을 내보이기 시작한 나뭇잎들을 보았습니다. 둘러보는 코스를 짧게 잡아 수형과 수피도 살펴보고 여유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육림호에서 크고 작은 물고기들도 한참을 보았습니다.

넓은 터에서 열심히 달리며 얼음뎡도 하고 숨바꼭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놀러온 어린이들이 보물찾기를 하는 것을 보고 꾸러기들도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꾸러기들이 찾은 보물은 애벌레들이었습니다. 애벌레를 찾다가 광대노린재도 만났습니다. 개미들도 찾고 죽은 사슴벌레의 머리랑 배랑 매미허물도 발견했습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매미허물들을 조심스레 떼어내어 살펴보았습니다. 찾아낸 벌레의 잔해와 허물을 넉적한 바위에 모아놓고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쓰레기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물찾기는 쓰레기 찾기가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치고 보지못하던 작은 벌레들도 쓰레기 조각들도 열심히 찾으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조각을 서너개씩 찾아 모아서 버리고 손을 씻었습니다.

지산이 하성이 하온이의 생일잔치를 했습니다. 세 친구를 함께 축하해주느라 몸이 바빴습니다. 안아주고 업어주고 꽃가마랑 이불썰매랑 꽃마차를 태워주느라 힘들었지만 모두들 즐겁게 축하해주었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어린이학교에서는 이번 주에 고구마를 캐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고구마를 캐다니 상상이 잘 안되지만 의외로 어린이들은 감자와 고구마 캐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배움과 가르침

어린이들은 장화와 장갑으로 무장하고 반별로 구역을 나눠 캐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자마냥 조심스레 호미질을 하는 어린이부터 힘이 너무 좋아 고구마에서 "뚝!"소리 나는 친구들, 재잘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구마가 하나씩 올라옵니다. 공동체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니 더욱 힘이 나고 즐거운 시간이었으며 고구마의 크기가 커 땅 속에서 나올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캐는 속도가 빨라 예정된 것보다 한고랑을 더 팠습니다. 이제 모아 놓은 고구마를 바구니에 담고 두세명이 쌍을 이뤄 번쩍 들어 올려 고무실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맛있는 고구마를 공동체와 가정에서 즐길 시간이 기대 됩니다.

< 교사 : 권재만 >

멋쟁이학교

세상이 옷을 바꿔입는 것에 맞춰서, 멋쟁이들도 옷과 마음을 갈아입는 한 주였습니다. 다함께 즐린 눈을 기독교교육주간 새벽기도에 참여하면서 몸이 피곤하기도 하지만,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보람찬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세계의 평화를 위한 기도제목들이 멋쟁이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어진 것이 참 기특했더랍니다.

공동심화 <한인 디아스포라>가 세계 속에서 우리가 가진 역할들을 확인하고 다짐하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열린수업에서는 저번에 다녀온 테마여행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예술 테마 답게 오감에 색다르고, 무척이나 재미있게 준비한 보고회였습니다.

금요일에는 포천시 교육재단에서 준비한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멋쟁이들에게 좋은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 6학년들은 다양한 루트로 진로를 준비하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멋쟁이들은 이번에 귀가할 때 학교에서 공동체학교에서 캔 고구마를 한 봉다리씩 받았습니다. 사람 팔뚝만한 크기의 고구마로 행복한 주말을 보내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인생은 60부터

○○ 집사의 결혼식장.

신부가 다니는 교회 식구들의 연령대가 젊은 사람들이다.

청년들, 젊은 부부와 아이들 …… 참으로 부러웠다.

사랑방교회의 초창기 같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젊은이들로 꽉찬 살아있는 교회, 힘이 넘치는 교회, 먼 앞날의 희망이 있었던 교회.

10여년 전만해도 우리 사랑방교회도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어른과 아이들의 비율이 거의 비슷했었다. 교회가 참으로 활력 있는 모습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교회를 부러워 한다.

우리 교회엔 30~40대의 젊은이들이 거의 없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 허리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젊은이들이 모두 다 밖으로 빠져나가고 없다.

늘푸른, 푸른꿈, 어린이, 꾸러기 조차 몇 명 안되는 상황이다.

초창기에 젊었던 교인들이 이제는 60전·후에 초로에 접어들어 나이를 운운하며, 몸과 마음이 약해졌음을 이야기 한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 이야기하는데, 60대면 청춘이지 않은가?

60대 집사님들이 힘을 내서 허리 역할을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지 않은가?

젊게 살면서, 젊은이 같이 일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며, 자라나는 세대들에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어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주간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 찬양시간.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아이들과 청년들을 보니까 마음이 흐뭇했다.

졸립고 힘들텐데 부모님과 함께 나와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고,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또 다시 사랑방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언제나 사랑방교회를 기억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미숙 권사

함께사는 이야기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장영미 전도사

찬 송 : 401, 436

성 경 : 시편 16편

말 씬 :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 인질들이 무사히 자국으로 돌아가고, 전쟁이 평화롭게 끝날 수 있도록.
*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참된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전해져서 진정한 살롬이 이뤄지도록.
2. 한국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새터마을 교회>
* 새터마을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거처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기독교 교육주간 새벽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고 오고 가는 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 심방이 잘 진행되어서 교회 생활이 온전하게 될 수 있기를.
* 다음주에 있을 어린이 도보여행이 잘 준비되어서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생활공동체 소식>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회에 공동식구들이 열심히 참여하여 공동체와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회 준비 및 뒷정리까지 열심히 섬겨주신 식구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가을 걷이를 하면서 각종 나물을 말리며 풍요로움을 느끼고, 고구마를 각 학교 학생들과 함께 캐며 추수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번에는 고구마도 풍년이어서 맛나고 커다란 고구마를 수확하였습니다. 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김장을 준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곧 서리가 내릴 것 같습니다. 단단히 대비하여 겨울 준비도 잘 해야겠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